

지역성원 연결망과 자원봉사 참여 - 지역과 개인수준의 연계를 통한 경험 연구 -

전 신 현(계명대 강사)

〈국문 요약〉

자원봉사는 그동안 남을 돕는 자선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성원들의 공동 참여의 노력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이타적이고 규범적인 동기이외에 지역성원들이 거주하는 지역내 성원들간의 연결망과 지역성원들의 공동체의식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원봉사 참여를 설명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 경험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의 설명요인으로 감정이입, 도덕규범이외에 지역성원 연결망(친밀도, 접촉도, 통합도)과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감정이입과 도덕규범이외에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원봉사 참여에 있어 주요 설명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지역성원들간의 연결망은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성원들간의 결속력과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복지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게 하는 그 주요 기반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I. 서론

사회복지의 구현에 있어 주민의 참여와 협력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대사회

에 있어 사회복지의 국가 혹은 정부주도하의 복지정책이나 서비스 제공의 측면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주복지사회의 구현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더 이상 사회복지에 담당하는 주체가 아니며, 특히 지방자치실시에 즈음하여 강조되고 있는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에 있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복지공동체의 실현에 있어서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1; 김영호, 1997; 최일섭, 류진석, 1997; 조휘일, 1998).

복지공동체의 실현에 있어 주민 참여의 그 대표적인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그 중요한 연구 영역의 하나가 된다. 자원봉사에 관한 기존의 경험연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인성, 태도, 동기 등을 발견하려는 데에 주목했다(Moore, 1985; Smith, 1983, 1994; 조휘일, 1991). 자원봉사는 무보수로 타인을 돕는 자선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듯이, 그것은 이타성향의 표현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회지위, 명예, 혹은 심리적 보상을 위한 이기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 종교상의 신념, 도덕적 의무감 그리고 사회책임 의식에서 나온 행동인지 등에 기존의 연구는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으로서의 협의의 개념이 아닌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주민 참여의 활동으로 본다면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김영호, 1989, 1997)¹⁾. 본 연구는 자원봉사를 단순히 개인의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과 복지공동체를 이루려는 일체의 집합노력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를 단순히 개인의 이타성향이나 도덕적 신념 등에 의해 설명하기보다는 지역성원들간의 상호 유대와 공동체의식을 통해 설명하려는 것을 시도하려고 한다. 즉 자원봉사는 지역성원들간의 유대와 공동의식이 강할 때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으로서의 지역성원들간의 연결망이 자원봉사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가 하는 지역 영향력의(contextual) 효과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성원들간의 유대와 연결망으로 결과되는 지역성원들의 지역 공동체의식과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원봉사를 설명하는 보다 중요한 설명요인이 되는지에 주목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거시수준과 미시수준을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개인의 행위는 거시지역적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되면서도 연구방법상의 문제로 그동안의 많은 연구

1)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김영호(1997)는 자원봉사라는 용어보다는 자원복지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며, 자원복지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질적인 삶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

는 이러한 경험연구에 소홀했었다. 여기서는 이를 경험적으로 접근함에 있어 지역단위의 연구설계와 다단계 표집방법을 통해 지역성원들간의 연결망과 유대, 그리고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원봉사에 미치는 지역구조적 효과를 모색하려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자원봉사에 대한 기존의 개인적 접근들

자원봉사는 무보수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자선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듯이, 많은 학자들은 자원봉사가 이타성향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보았다. 이타행동이란 자신에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고통을 받거나 어려운 사람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그들을 돕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정의되는데(Piliavin and Charng, 1990), 자원봉사활동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타행동의 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이타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자원봉사의 동기가 남을 진정 도우려는 순수한 이타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게 된다(Cnaan and Goldberg-Glen, 1991; Batson, 1995).

자원봉사나 남을 돕는 행동이 이타적 동기에 의해 비롯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특히 감정이입(empathy)이 그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아 왔다. 감정이입이란 어렵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고통을 느끼며 안타까와하는 감정반응을 말하는데, 남을 돕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안타까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 감정이입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타자지향적인 관심에서 비롯되는 감정으로, 감정이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남을 돕는 행동은 분명 이타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게 된다(Batson et al., 1981; Batson, 1987; 전신현, 1998).

그러나 자원봉사나 남을 돕는 행동은 이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즉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한 행동이라 보는 것이다²⁾. 이 입장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줄이려는

2) 이 입장에 따르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남을 돕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감정이입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목격할 때 불편한 감정상태를 겪게 되는데, 남을 돕는 것은 그러한 자신들의 불편한 감정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즉 감정이입적 관심 때문에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정적 감정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Piliavin et al., 1981).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임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자원봉사나 남을 돕는 행동은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따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즉 자원봉사는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명예, 주위의 칭찬, 사회경험의 축적, 개인적으로 느끼는 자부심 등의 심리적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라고 한다. 더욱이 자원봉사가 신체적 위험, 물질상의 혹은 시간상의 비용, 통근상의 불편함이 있을 때에는 쉽게 중단될 것이라고 본다. 자원봉사는 이득 때문이외에도 그로 인해 큰 손실이 없을 때에 한하여 가능한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Stinson and Stam, 1976; Piliavin et al., 1981; Smith, 1983; Dovidio et al., 1991; Murnighan et al., 1993).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자원봉사나 남을 돕는 행동이 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합리적 계산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순수한 봉사정신의 이타적 동기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해 왔다. 예를 들어 Batson과 그 동료들은(1981, 1987, 1995) 남을 도울 때 기대되는 보상보다도 감정이입의 경험이 남을 돕는 행동의 보다 중요한 원인이 됨을 밝혀왔고, 이러한 입장은 국내의 경험 연구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 왔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4; 한국여성개발원, 1984; 현대사회연구소, 1985; 조휘일, 1991; 전신현, 1998).

자원봉사는 이기적 동기도 이타적 동기도 아닌 도덕적 동기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주장들도 있다. 즉 자원봉사나 남을 돕는 행동은 내면화된 가치체계로부터 나온 도덕적 신념과 의무감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chwartz, 1977; Zuckerman and Reis, 1978; Piliavin and Libby, 1986; Wuthnow, 1991; Harrison, 1995). 이는 남을 돕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 생각하고 남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남을 도와야 한다는 개인규범 및 도덕적 의무감과 개인의 신념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라 주장하게 된다³⁾.

2.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 참여로서의 자원봉사

최근에는 자원봉사가 단순히 남을 돕는 이타행동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복지를 달성하려는 지역복지공동체를 위한 집합노력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김영호, 1997). 이 입장은 지역 주민 모두를 복지의 공급자이며 수혜자로 본다.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3)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과 믿음에 의해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도 도덕적 동기에 주목하는 입장에 해당되는 논의가 될 것이다(Cnaan et al., 1993; Wilson and Janoski, 1995).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자원봉사는 하나의 집합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집합행동 이론으로는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을 들 수 있다(Tilly, 1978; Zald and McCarthy, 1987). 이 이론에 따르면 충분한 물질, 인적 자원이 동원될 때 집합협력의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그것은 그러한 자원이 동원될 때 집합행동으로 결과될 그 성공의 가능성은 높고 그에 따른 전체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성원들이 집합협력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입장에서는 지역성원들간의 사회연결망이 집합행동이나 집합협력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보고 있다(Oliver et al., 1985; Marwell and Oliver, 1988, 1993; Gould, 1993; Oberschall, 1993). 성원들간의 연결망이 강할수록 상호교환관계의 연결망이 형성되고 집합협력의 성공으로 공동의 이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원동원이론에서의 사회연결망적 접근은 이와 같이 인간이 합리적 존재임을 가정한다.

Oliver와 그 동료들(1985)의 '결정적 다수 이론(critical mass theory)'에 따르면, 집합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른 성원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면 성원들은 참여에 망설이게 된다고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손실과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인데, 자신만의 참여로 전체 성원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며 자신이 참여할 때 감수하게 되는 비용에 비해 전체의 이익으로부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그만큼 적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원들간에 사회연결망과 유대가 강할 경우 다른 사람들도 집합협력에 참여할 것이라 서로 믿게 되고 상호 신뢰감이 형성됨으로써 집합협력은 자연스럽게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하게 된다(Yamagishi and Sato, 1986; Marwell and Oliver, 1993).

이와 같이 자원봉사를 지역사회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합협력의 행동으로 이해한다면 지역 성원들간의 유대와 연결망은 자원봉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를 개인의 성향보다는 지역성원들의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 참여의 형태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이 된다(Oliver et al., 198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Wilson and Musick, 1997). 국내의 연구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계기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동료, 이웃에 의해 권유되거나 소속 단체의 활동 일환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김기선, 1984; 한국여성개발원, 1984; 현대사회연구소, 198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이는 친밀한 인간관계와 유대의 연결망이 자원봉사에의 참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지역성원들간의 접촉빈도나 상호교환, 유대 등이 높을수록 성원들은 집합협력에 참여하게 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도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또 다른 집합행동의 이론에서는 사회성원들간에 형성하게 되는 공동의 의식과 집합정체성이 집합협력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Zucher and Snow, 1981; Melucci, 1985; McAdam, 1986; Snow et al., 1986; Taylor and Whitter, 1992; Williams, 1995).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가 등 소위 사회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집합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원들간의 연결망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외적 요건보다는 성원들에 의해 인식되고 공유되는 의미구성의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상징적인 국면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것이다⁴⁾.

이들에 따르면 집합행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원의 동원이 아니라 성원들간에 공유되는 집합정체성이라고 본다. 즉 성원들은 이득이나 비용의 계산으로 동기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체의 한 성원이라는 연대적인 공동체의식에 의해 집합노력에 참여한다는 것이다(Melucci, 1985; Taylor and Whitter, 1992). 이 입장에 따르면 사회연결망적 접근은 객관적인 사회관계에만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의미구성의 측면에 소홀했다고 지적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각 성원의 자아의식속에 합치되는 집합정체성이 집합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

집합정체성이란 성원들이 사회성원의 한 일원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자아의식으로, 이는 자기 이해와는 관계없는 우리의식과 같은 집합의식을 말하며, 이러한 자아의식은 어떠한 동기유인없이도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집합협력에 참여하게 하는 주요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자원봉사도 지역의 발전과 복지공동체를 이루려는 성원들의 집합노력의 형태로 본다면 지역성원들간의 연결망이나 유대이외에도 지역성원들이 지역성원으로서 지니게 되는 지역정체성은 자원봉사에의 참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및 연구모델

본 연구는 이타성향과 같은 개인의 특성과는 독립적으로 지역성원들간의 연결망과 지역성원

4)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으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 국내 연구로는 김영호(1989, 1997)가 제시하고 있는 현상학적 커뮤니케이션방법을 들 수 있다.

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원봉사 참여를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데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자원봉사는 타인을 돕는 자선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듯이, 이타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들에 의거하여 어렵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볼 때 그 고통을 이해하고 가슴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일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평소 느끼는 감정이입의 경험 여부를 자원봉사를 설명하는 그 주요 요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자원봉사는 이타적 동기이외에도 도덕적 의무감과 신념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개인적으로 남을 돕는 것이 옳은 행동이며 남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 강한 사람이 자원봉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설1 : 고통을 받는 사람에 대해 감정이입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2 : 남을 도와야 한다는 규범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자원봉사를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성원들의 공동 참여의 노력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타적, 도덕적 동기이외에 지역성원들간의 연결망 또한 자원봉사의 참여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역성원들간의 연결망이 강한 지역의 성원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지역성원들간에 공유하는 집합정체성이 높을수록 집합노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지역성원들간의 연결망이외에도 성원들이 지니는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원봉사 참여를 설명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원봉사는 이타성향이나 도덕적 동기이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복지공동체를 달성하려는 집합적 동기에 의해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설3 : 지역연결망과 유대가 강한 지역의 성원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4 :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자원봉사를 특히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닌 지역성원들의 집합노력으로 이해

한다면 가설1과 가설2보다는 가설3과 가설4가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논의에 의거해 볼 때 지역성원들이 공유하는 공동 의식과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은 지역연결망보다 자원봉사를 설명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즉 가설3보다는 가설4가 지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한편 지역성원들의 연결망은 자원봉사 참여에 독립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사회연결망과 유대가 강한 지역의 성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 성원들이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지역연결망이 높은 성원들은 지역 공동의식을 형성하고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지역성원들간의 사회연결망과 결속력도 성원들간의 공동 이해를 창출함으로써 집합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설3과 가설4를 통합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가설5 : 지역연결망과 유대가 강한 지역의 성원들은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됨으로써 그러한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가설들을 검증함에 있어 자원봉사의 참여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감정이입, 도덕규범, 지역연결망 그리고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델을 구성, 이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독립변인들이외에도 사회배경변인인 성별과 수입을 또 다른 독립변이자 통제변인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동안의 연구들을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남을 돕는 이타적 행동이외에도 자원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어지기 때문이다(Piliavin and Unger, 1985; Eagly and Crowley, 1986; Eisenberg et al., 1989; Hodgkinson and Weizman, 1992; 전신현, 1998). 또한 기존의 연구는 수입이 높은 부유한 사람이 남을 돕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오고 있다(Hodgkinson and Weizman, 1992; Smith, 1994)⁵⁾.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변인의 측정

본 연구모델은 독립변인으로 개인단위의 변인들도 있지만 지역연결망과 같은 지역단위의 변

5) 기존의 연구들은 그러한 사회배경변인들이외에도 종교, 연령 등을 고려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에 주요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던 성과 수입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인을 포함하고 있고, 이 변인을 개인단위인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외에 종속변인인 자원봉사 참여와 연계하는 지역구조적인 효과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거시요인과 미시요인을 연계할 수 있는 다단계 연구설계를 실시하기로 한다. 이는 지역단위와 개인단위 변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상을 표집하는 방법으로, 지역연결망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다수의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각각의 지역내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일정한 성원들을 표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지역연결망과 같은 지역단위의 변인은 각 지역내 성원들의 응답 값을 통해 산출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내에 있는 이웃단위의 40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당 10명씩의 응답자를 선정하여 총 남녀 4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0개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는 우선 서울시내의 40개 동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각 동에서 통반단위의(예를 들어 3통 4반) 한 지역을 선정, 그 지역내의 성원들을 남녀 및 연령대별로 할당하여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10명씩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1993년 12월에 이와 같은 다단계 층화집락표집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지역내의 성원들의 연결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그 동네 이웃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지, 이웃사람들간에 서로 자주 만나는지, 어려운 일이나 그밖의 일에 서로 잘 돕고 협력하는지를 각각 질문하였다. 이들 각 문항은 사회연결망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역의 친밀도, 지역의 접촉도 그리고 지역의 통합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Freudenberg, 1986; Buckner, 1988; Sampson, 1988, 1991).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단위의 값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10명의 위의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통해 각 40개 지역의 연결망 정도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지역성원들의 상호친밀도, 지역성원들의 접촉빈도, 그리고 지역성원들의 통합도를 도출하기로 한다.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가들의 논의에 따라 정체성의 층화를 통해 측정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다음 중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위를 정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직장인으로서의 나, 아내 혹은 남편으로서의 나, 부모 혹은 자식으로서의 나, 우리동네 주민으로서의 나, 친구, 동료로서의 나, 각종 모임이나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나, 종교인으로서의 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나 등 여덟가지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각각의 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Stryker and Serpe, 1982; Serpe, 1987).

이때 여덟가지 정체성의 각각의 항목들은 1점에서부터 8점까지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네 번째 항목인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의 항목에 주목하기로 하는데, 이 변인에 있어 1점은 다른 정체성보다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

서는 그 응답값인 1점에서부터 8점을 역으로 부호화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감정이입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실험연구는 어렵고 고통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의 얼굴 표정이나 심장박동수를 통해 측정해 왔으나, 설문조사의 연구인 여기서는 감정이입의 개념에 보다 근거하여 어렵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평소의 반응을 통해 알아보았다 (Eisenberg and Fabes, 1991; 전신현, 1998). 이에 “어렵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내가 그런 것과 같이 가슴이 아프다”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 점 척도에 응답토록 했다.

도덕규범은 남을 돕고 봉사해야 된다는 개인규범 혹은 의무감이나 내면화된 신념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처럼(Schwartz, 1977; Piliavin and Libby, 1986), “어렵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질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에 응답자들로 하여금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했다.

본 연구에 있어 종속변인인 자원봉사 참여는 과거의 경험보다는 앞으로의 의도를 통해 질문하기로 했다. 한 시점에서 조사하는 횡단적 조사연구에서는 흔히 종속변인을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질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현 시점에서 질문하는 다른 독립변인들과의 인과관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은 1차조사에, 그리고 종속변인을 2차조사에서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설계가 바람직하나 횡단적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1년간의 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자원봉사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무보수로 남을 돕고 봉사하는 활동이라는 본래의 정의에 의거,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1년간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의 시설을 몇 번이나 방문하여 봉사하려 하는지의 의도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파악하기로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없는 경우, 1회, 2회, 3회 이상 등 네 항목으로 부호화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배경변인으로 사용될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의 응답을 통해, 그리고 수입은 가족의 전체수입을 중심으로 30만원 미만에서부터 300만원 이상에 이르는 아홉 등급으로 질문하고 이에 응답토록 하였다.

IV. 분석결과

여기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는 남녀 각각 200명씩이 선정되었으며 수입의 평균은 100만

원에서 15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⁶⁾.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감정이입이나 남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규범에 있어 그 평균값은 중간 정도를 나타냈으며 감정이입보다는 남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규범에서의 평균값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	0.50	0.50	0-1
수입	5.35	1.74	1-9
감정이입	2.72	0.72	1-5
도덕규범	3.00	0.60	1-5
지역친밀도	2.28	0.35	1.8-3.4
지역접촉도	2.08	0.32	2.2-3.5
지역통합도	2.04	0.32	2.3-3.5
지역정체성	4.04	1.54	1-8
자원봉사	0.45	0.83	0-3

지역성원들간의 연결망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성원 10명의 평균값으로 알아보았던 지역성원간의 친밀도, 접촉빈도 그리고 통합도를 보면, 그 값의 범위는 대략 2점에서 3.5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⁷⁾, 각각의 평균값은 2.28, 2.08,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면 지역성원들간의 접촉빈도나 통합도보다는 친밀도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지역성원들간의 연결망은 다소 낮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지역성원들간의 친밀도, 접촉빈도 그리고 통합도는 40개 지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 6) 그 평균값은 아홉 항목중 다섯번째 항목인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00명 중 32%인 126명이 그러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본 연구에 있어 응답자의 연령의 평균은 대략 38세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
- 7) 앞서 측정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 질문문항에 대해 각각의 응답자에게는 1점에서부터 5점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했다.
- 8) 지역성원들간의 친밀도는 $P = .01$ 수준에서, 그리고 지역성원들간의 접촉빈도와 통합도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순위

순위	명	%
1. 8위	13	3.3
2. 7위	47	11.8
3. 6위	88	22.0
4. 5위	87	21.8
5. 4위	81	20.3
6. 3위	40	10.0
7. 2위	15	3.8
8. 1위	8	2.0
무응답	21	5.3
합계	400	100.0

지역성원으로서 정체성에 있어서는 평균값이 4.04로 나타났으며 <표 2>에서 보듯이 여덟가지의 정체성들 중에서 대략 5위의 순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 400명 중 2%인 여덟명은 다른 정체성들보다도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대다수 응답자들은 4위에서 6순위에 해당된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1년 동안의 자원봉사의 의도에 대한 평균은 '없다'에서 1회 정도의 중간에 해당되는 0.4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횟수를 살펴본 결과 400명 중 66%에 해당하는 265명의 많은 응답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봉사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을 보였고, 1회 정도 봉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60명, 2회는 27명, 그리고 3회 이상은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은 30명). 한달에 한 번 정도에 해당되는 10회 이상 방문하여 봉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7명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자원봉사활동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이 되는 연구모델 및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3-1>과 <표 3-2>에 제시된다⁹⁾.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분석결과를 보면 자원봉사의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독립변인은 성, 감정이입, 도덕규범 그리고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과 지역연결망과 관련된 변인들은(지역성원들간의 친밀도, 접촉도, 통합도) 자원봉사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본 연구결과도 <표 3-1>에서 보여지듯이 여성이 남성보다는 자

9) 여기서 <표 3-1>에서는 회귀분석에 있어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표 3-2>에서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제시한다. <표 3-2>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들간의 상호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다.

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입은 자원봉사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가슴이 파하는 감정이입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 개인성향에 주목했던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가설1과 가설2은 지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설3과 가설4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표 3-1>에서 보듯이 지역연결망과 관련된 변인들은 자원봉사 참여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는 못해 가설3이 지지되지는 못했으나,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일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가설4가 지지되었음을 알게 된다.

<표 3-1> 연구모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비표준화된 계수)

독립변인	종속변인	
	지역정체성 (1)	자원봉사 (2)
여성	.214	1.049*
수입	-.047	.014
감정이입		.145*
도덕규범		.137*
지역친밀도	.268	.048
지역접촉도	.925*	.183
지역통합도	.381	.092
지역정체성		.082**
R-Square	.049	.082

* = p<.05; ** = p<.01

그러나 <표 3-1>의 (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지역연결망으로서의 지역성원들간의 친밀도나 통합도는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는 못했지만, 지역성원들간에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 가설5가 지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연결망이 자원봉사의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기보다는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는 비록 기존의 연구들이 주목했던 감정이입이나 도덕신념도 자원봉사의 참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 3-2>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에서 보여지듯이 그러한 변인들의 영향력보다는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의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영향력이 보다 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가설1과 가설2보다 가설5에 주목했던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자원봉사에의 참여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타적 동기나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지역성원들간에 연결망이 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됨에 따라 참여하게 되는 지역성원들의 집합협력의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3-2> 연구모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표준화된 계수)

독립변인	종속변인	
	지역정체성 (1)	자원봉사 (2)
여성	.014	.121
수입	-.055	.030
감정이입		.128
도덕규범		.121
지역친밀도	.062	.020
지역접촉도	.196	.071
지역통합도	.079	.035
지역정체성		.150

V. 결 론

본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의 그 원인을 살펴봄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개인의 이타성향이나 도덕규범이외에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성원들간의 연결망 및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주요 요인이 되는지를 경험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 자선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복지공동체를 위한 성원들의 집합노력의 한 형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자원봉사에의 참여를 지역성원들간의 상호 유대와 공동체의식을 통해 이해하려고 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원봉사 참여가 개인성향에 의해서도 설명되지만 지역관련 요인에 의해

서도 크게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성원들간의 연결망은 자원봉사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는 못했지만 지역연결망과 유대가 강한 지역의 성원들이 지니게 되는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원봉사의 참여를 설명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역성원들간의 직접적인 사회관계나 유대보다 지역성원들이 공유하는 연대적인 공동체의식이 자원봉사의 참여를 가져오는 그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가 이타적 동기나 도덕적 동기이외에 집합적 동기에 의해 가능한 행동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지역성원들의 결속력과 소속감 그리고 공동의 의식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가치관 교육, 자원봉사의 관리체계의 확립, 정부의 지원 및 제도적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 지역의식의 확립 또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소규모의 이웃이나 근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 의식이 전체사회의 단위로 확대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간의 공감대와 지역의식은 근린지역을 단위로 할 때 형성될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복지향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지역성원들간에 접촉의 빈도가 많을수록 그 구성원들은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민들의 접촉은 근린지역 단위에서 보다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사회 등 근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의 모임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지역성원들간의 공동의식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강조했듯이 소규모 근린지역 단위의 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이 지역복지문제 현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각종 주민토론회나 주민모임을 활성화하는 것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단위로 운영하고 그 곳을 방문하여 돕는 자원봉사활동도 그 지역주민들이 담당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지공동체의 구현이라는 공동 이해가 성원들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선, 1984.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83호. pp.123-5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김영호, 1989. 자원복지이론과 실제. 홍익재.
- 김영호, 1997. 자원복지활동의 활성화 방법. 학문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서울시 자원봉사자 활용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전신현, 1998. "여성의 감정이입과 남을 돕는 행동", 여성연구논총 제13호. pp. 67-94. 서울여대여성연구소.
- 조휘일, 1991.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 조휘일, 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홍익재.
- 최일섭, 류진석, 1997.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4.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연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1. 지역사회복지봉사의 이론과 실제.
- 한국여성개발원, 1984. 공공분야 및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유희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
- 현대사회연구소, 1985.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조사연구.
- Batson, C.D. 1987. "Prosocial Motivation",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L. Berkowitz(ed.). New York: Academic Press.
- Batson, C.D., B. Duncan, P. Ackerman, T. Buckley and K. Birch. 1981. "Is Empath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pp.290-302.
- Batson, C.D., J.G. Batson, T.M. Todd, B.H. Brummett, L.L. Shaw and C.M. Aldeguer. 1995. "Empathy and the Collective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pp.619-31.
- Buckner, J. 1988.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eighborhood Cohe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pp.771-91.
- Cnaan, R.A. and R.S. Goldberg-Glen. 1991. "Measuring Motivation to Volunteer in Human Service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27. pp.269-84.
- Cnaan, R.A. A. Kasternakis and R. Wineberg. 1993. "Religious People, Religious Congregations and

- Volunteerism in Human Services: Is There a Link?",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2. pp.33-51.
- Dovidio, J.F., J.A. Piliavin, D.A. Gaertner, D.A. Schoroeder and R.C. Clark. 1991. "The Arousal: Cost-reward Model and the Process of Intervention: A Review of the Evidence", in *Prosocial Behavior*, M.S. Clark(ed.). Newbury Park: Sage.
- Eagly, A.H. and M. Crowley. 1986. "Gender and Helping Behavior", *Psychological Bulluin* 100. pp.283-308.
- Eisenberg, N., R. Fabes and C. Shea. 1989. "Gender Differences in Empathy and Prosocial Moral Reasoning", in *Who Cares? Theory, Research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Ethic Care*, M.M. Brabeck(ed.). New York: Praeger.
- Eisenberg, N. and R. Fabes. 1991.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in *Prosocial Behavior*, M.S. Clark(ed.). Newbury Park: Sage.
- Freudenberg, W. 1986. "The Density of Acquaintership: An Overlooked Variable in Community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pp.27-63.
- Gould, R.V. 1993. "Collective Action and Network Structu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pp.182-96.
- Harrison, D.A. 1995. "Volunteer Motivation and Attendance Decis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 pp.371-85.
- Hodgskin, V. and M. Weitzman. 1992.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Independent Sector.
- Marwell, G., P. Oliver and R. Prahl. 1988. "Social Networks and Collective Action: A Theory of Critical Mass III",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502-34.
- Marwell, G. and P. Oliver. 1993. *The Critical Mass in Collective Action: A Micro-Social The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Adam, D. 1986. "Recruitment to High-risk Activism: The Case of Freedom Summ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pp.64-90.
- Melucci, A. 1985. "The Symbolic Challenge of Contemporary Movements", *Social Research* 52. pp.789-816.
- Melucci, A. 1988. "Getting Involved: Identity and Mobilization in Social Movements",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pp.329-48.

- Moore, L.F. 1985. *Motivating Volunteers*. The Vancouver Volunteer Center.
- Murnighan, J.K., J.W. Kim and A.R. Metzger. 1993. "The Volunteer Dilemma",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 pp.515-38.
- Oberschall, A. 1993. *Social Movement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Oliver, P., G. Marwell and R. Teixeira. 1985. "A Theory of Critical Mass, I: Independence, Group Heterogeneity and the Production of Collective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pp.522-56.
- Piliavin, J.A., J.F. Dovidio, S.L. Gaertner and R.D. Clark. 1981. *Emergency Interven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Piliavin, J.A. and R.K. Unger. 1985 "The Helpful but Helpless Female: Myth or Reality?", in *Women, Gender and Social Psychology*, V. O'Leary, R.K. Unger and B.S. Wallston(eds.). Hillsdale, NJ: Erlbaum.
- Piliavin, J.A. and D. Libby. 1986. "Perceived Social Norms, Personal Norms and Blood Donation", *Humbolt Journal of Social Relations* 13. pp.159-94.
- Piliavin, J.A. and H.W. Charng. 1990. "Altruism: A Review of Recent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pp.27-65.
- Sampson, R.J. 1988.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 Multilevel Systemic Mod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pp.766-79.
- Sampson, R.J. 1991. "Linking the Micro-and Macrolevel Dimensions of Community Social Organization", *Social Forces* 70. pp.43-64.
- Schwartz, S.H. 1977. "Normative Influence on Altruism",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L. Berkowitz(ed.). New York: Academic Press.
- Serpe, R.T. 1987. "Stability and Change in Self: A Structural Symbolic Interactionist Explan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pp.44-55.
- Smith, D.H. 1983. "Altruism, Volunteers and Volunteerism",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2. pp.21-36.
- Smith, D.H. 1994. "Determinants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A Literature Review",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3. pp.243-63.
- Snow, D.A., E.B. Rochford, S.K. Worden and R.D. Benford. 1986.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pp.464-81.

- Stinson, T.F. and J.M. Stam. 1976. "Toward an Economic Model of Voluntarism: The Case of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5. pp.52-60.
- Stryker, S. and R.T. Serpe. 1982 "Commitment, Identity Salience and Role Behavior: Theory and Research Example", in *Personality, Roles and Social Behavior*, W. Ickes and E. Knowles(eds.). Springer-Verlag.
- Taylor, S. and N. Whitter. 1992. "Collective Identity in Social Movement Communities", in *Frontiers of Social Movement Theory*, A. Morris and C. Mueller(ed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illy, C. 1978.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 Williams, R.H. 1995. "Constructing the Public Goods: Social Movements and Cultural Resources", *Social Problems* 42. pp.124-44.
- Wilson, J. and T. Janoski. 1995.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Volunteer Work", *Sociology of Religion* 56. pp.137-52.
- Wilson, J. and M. Musick. 1997. "Who Care?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pp.694-713.
- Wuthnow, R. 1991. *Acts of Compassion*. Princeton, NJ: University of Princeton Press.
- Yamagishi, T. and K. Sato. 1986. "Motivational Bases of the Public Goods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pp.67-73.
- Zald, M.N. and J.D. McCarthy. 1987. *Social Movements in an Organizational Society*. New Bruswick: Transaction.
- Zucker, L.A. and D.A. Snow. 1981. "Collective Behavior: Social Movement" in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 M. Rosenberg and R. Turner(eds.). New York: Basic Books.
- Zuckerman, M. and H.T. Reis. 1978. "Comparison of Three Models for Predicting Altruistic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pp.498-510.

Neighborhood Networks and Volunteering

-Linking the neighborhood- and individual-level Dimensions-

Jun Shin-Hyun

(Keimyung University)

Volunteering has been defined as a form of altruistic helping behavior directed at improving other's welfare. Volunteering is, however, also identified as a type of collective action for community welfare. In this regard, this study tests whether neighborhood member's network and collective identity are more important determinants to explain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than altruistic or normative motivation. This study estimates a model in which volunteering is determined by empathy, normative beliefs, neighborhood networks(friendship, contacts, and integration), and identity as a neighborhood member. This study shows that empathy, normative beliefs, and collective identity as a neighborhood member have significant impacts on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In addition, this study reveals that neighborhood member's network has an indirect impact on volunteering through identity as a neighborhood memb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neighborhood community member's ties and collective identity are important sources for community welfare and collective volunteer work.